

일반논문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 활용 방안

김 희 태(前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목차

1. 머리말
2.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 현황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 활용 사례
4.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 활용 방안
5. 맺음말

1. 머리말

나주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전쟁기에 전라도에서는 유일하게 동학농민군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었다. 이러한 탓인지 나주 지역에서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은 다른 지역처럼 높지는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¹ 일반의 인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주 지역에서는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삼가면의 오권선, 노안면의 전유창 등이 유명하였다. 동학농민군의 나주성 공략은 7월과 9월에 이루어지지만 수성군의 대항을 넘지 못한다. 이후에 중앙정부에서는 나주목에 호남초토영을 설치하고 동학농민군과 일전을 벌였다. 나주 초토영에서는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들이 다른 곳에서 체포되어 와 기본적인 조사를 받았다. 90여 명 가운데 70여 명이 처형되기도 하였다. 한편 최근 확인된 일본군 『종군일기(從軍日誌)』일기에 따르면 “사람의 시체가 쌓여서 실로 산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면서 680여 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투지가 처형지가 된 것이다. 이처럼 나주의 동학농민혁명 전쟁 시기는 일반적으로 상호 격전을 치르는 전적이면서도 잡혀온 이들을 학살

* 이 논문은 나주 동학농민혁명 국제학술대회-나주 동학농민혁명, 한에서 흥으로 승화하다 (나주시·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소, 2019. 10. 30)에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1 이상식·박맹수·홍영기 편, 『전남지방 동학농민혁명 자료집』, 전라남도, 1996; 배항섭, 「나주지역 동학농민전쟁과 향리층의 동향」, 『동학연구』 19, 2005; 나선희, 『조선 후기 나주 향리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논문, 2006; 이상암, 「나주지방의 동학농민전쟁과 관군의 대응」,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논문, 2014; 홍영기,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사회운동사-동학농민혁명과 의병항쟁-』, 광주광역시·전라남도, 2016.

하는 처형지라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인식과는 관점을 달리하여 바라보아야 하고, 관련 문화유산의 조사나 활용 방안²도 새로운 시각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2.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 현황

1894년 음력 4월 동학농민혁명군이 나주를 공격하기 시작하자 나주목사 민종렬이 이끄는 수성군은 이에 격렬히 저항하여 동학농민군들의 피해가 컸다. 이에 함평에 주둔한 농민군 측에서는 나주목사에게 통문을 보내 투항을 권유하기도 했다. 음력 7월 나주 대접주 오권선과 최경선이 이끄는 농민군은 금성산·함박산 등지에 주둔하며 나주성을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그러자 음력 8월 전봉준이 직접 나주목사를 찾아가 수성군의 해산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다.

10월 나주목사 민종렬은 호남 초토사로 임명되었고, 나주에는 호남초

2 필자는 몇 차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논의를 다룬 적이 있다. 김희태, 「수은 강항선생의 선양활동」, 『문화부 이달의 문화인물 수은 강항선생 학술대회』, 2001.03.27. 영광군청 회의실: 「존재 위백규의 선양활동과 문화유산의 활용」, 『전남도립담양대학논문집』 제5집, 2003: 「유팽로의 추송현황과 문화유산 현양의 방안」, 『임진왜란과 유팽로의 의병운동』, 곡성군, 2014: 「영광 법성진 사적 지정과 활용계획」, 『영광 법성진 사적지정 학술대회』, 영광군(문화교육사업소)·(재)한국경제연구소, 영광 예술의전당, 2018.07.19: 「장성지역 노사학과의 의병유산과 그 활용 방안」, 『노사학과의 장성의병』, 노사학연구원·전라남도·장성군, 장성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019.10.18; 김희태 외, 「전남지방 고대 문화유산 보존관리 추진현황과 개선방향」, 『전남 고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 방안』, 전라남도·목포대박물관, 2002.

토영이 설치되었다. 음력 11월 다시 농민군과 수성군의 전투가 벌어졌으나 침산·남산촌·용진산 등 전투에서 농민군이 패퇴했다. 결국 나주는 농민군이 함락하지 못했고, 집강소 또한 설치되지 못했다.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은 유적과 유물로 크게 나누어 정리해 보겠다.

1) 유적

유적은 활동지, 전적지, 기념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활동지는 출생지(생가)나 거주지, 전적지는 전투지 주둔지, 점령지, 회담지, 처형지 등을 들 수 있다. 기념물은 혁명전쟁 이후의 묘소나 비석, 사당 등이다.

우선 전라남도 지역의 유적³은 21개 시·군에서 102건⁴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을 확인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것이다. 유적의 종류는 18개 항목⁵으로 구분하였다. 나주 지역은 7개소가 조사 되었다. 주둔지 2개소, 전투지, 회담지, 처형지 각 1개소, 기념비 2개소이다. 1개소는 위치 확정을 못 하였다. 보고서로 간행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⁶

3 전라남도·무등역사연구회, 『전남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전남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실태조사』, 2011.

4 조사는 124건이었고 보고서에는 102건을 실었다. 완도와 신안에서는 조사되지 않았다.

5 유적의 종류와 분포는 집강소(10), 전투지(18), 점령지(8), 주둔지(7), 근거지(5), 집결지(3), 훈련지(4), 체포지, 구금지(1), 처형지(11), 매장지, 은거지(4), 은신지(1), 제작지(2), 생가(2), 거주지(5), 묘소(4), 기념물(10), 기타(7-저술지2, 회담지1, 사당1, 저장소1, 도항지1, 상륙지1)이다. (위 책, 『전남의 동학농민혁명 유적』, 12·23쪽.).

6 『전남의 동학농민혁명 유적』 56~71쪽.

〈표 1〉 나주 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

연	유적	소재	성격	형태	상태	지정별
1	나주성 서성문 전투지	나주시 교동 42	전투지	성곽	원형복원	사적(제302호)
2	남산 전투지	나주시 죽림동 남산공원(추정)	전투지	산야	위치확정 안됨	
3	나주 목사 내아 전봉 준·민중렬 회담지	나주시 금계동 33-1 (금학현 내아)	회담지	건물	원형보존	전남문화재자료 (제132호)
4	금성산 농민군 주둔지	나주시 경현동 산	주둔지	산야	원형보존	
5	함박산 농민군 주둔지	나주시 대호동 산62(성향공원)	주둔지	산야	변형	
6	나주 호남초토영 터 농민군 처형지	나주시 남외동 128 (나주초등학교)	처형지	건물	멸실	
7	금성토평비	나주시 과원동 109-5(금성관)	기념비	비석	원형보존	전남문화재자료 (제175호)
8	나동환 의적비·진주 정씨 행적비	나주시 금계동 13-18 정수루옆[이진]	기념비	비석	원형보존	

(1) 나주성 서성문 전투지

1894년 음력 7월 동학농민군과 나주 수성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⁷ 『금성정의록』·『오하기문』등에 관련 내용이 실려 있다. 2011년에 서성문이 복원되었다. 1894년 음력 7월 5일 나주의 대접주 오권선(吳勸善)과 최경선(崔景善)이 이끄는 동학농민군 1만여 명은 금성산을 거쳐 나주성에 이르러 수성군과 접전을 벌였다. 나주성에는 동점문(東漸門)·서성문(西城門)·남고문(南顧門)·북망문(北望門)이 있었는데 전투는 주로 서성문에서 치러졌으며, 농민군은 끝내 나주성 함락에 실패했다. 한편

7 『蘭坡遺稿』《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8(역사문제연구소·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 1996, 이하 《叢書》로 약칭), 134쪽; 『錦城正義錄』《叢書》7, 31쪽; 『전남동학농민혁명사』, 265·288쪽. 『전남의 동학농민혁명 유적』 인용. 이하 같음.

서성문은 전봉준이 나주목사 민종렬을 만나 답판을 짓기 위해 8월 중순 나주읍성에 닿았을 때 수문별장(守門別將)에게 자신의 신분과 목적을 밝힌 곳이라고도 한다.

(2) 남산 전투지

『오하기문』, 『금성정의록』, 『전남동학농민혁명사』(289쪽)에 나오나 위치 확정이 안 된 유적이다.

(3) 나주목사 내아 전봉준·민종렬 회담지

1894년 음력 8월 전봉준과 나주목사 민종렬이 회담을 벌인 곳이다.⁸ 1894년 음력 7월 오권선·최경선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나주성 함락에 실패하자 전봉준은 음력 8월 13일 부하 10여 명과 함께 나주성 서성문에 닿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나주목사 민종렬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전봉준과 민종렬은 나주목사 내아(羅州牧使內衙, 금학헌)에서 만났는데, 전봉준의 수성군 해산 권고를 민종렬이 거절하여 회담은 결렬되었다.

(4) 금성산 농민군 주둔지

1894년 음력 7월 동학농민군이 나주성 공격을 위해 주둔했던 곳이다.⁹ 1894년 음력 7월 1일 오권선·최경선이 이끄는 동학농민혁명군은 나주

8 東學史』《叢書》1, 474~475쪽; 『錦城正義錄』《叢書》7, 15쪽; 『전남동학농민혁명사』, 278~282쪽.

9 錦城正義錄』《叢書》7, 11~12쪽; 『梧下記聞』《叢書》1, 156쪽; 『전남동학농민혁명사』, 272쪽.

금안동에서 합류하여 수일 동안 전투를 벌이고 금성산에 주둔했다. 이들 10,000여 명의 동학농민군은 음력 7월 5일 하산하여 나주성의 서성문을 공격했으나 끝내 함락시키지 못했다.

(5) 함박산 농민군 주둔지

1894년 음력 11월 동학농민군이 나주성 공격을 위해 주둔했던 곳이다. 1894년 음력 11월 23일 금안면(金安面)¹⁰ 남산촌(南山村)¹¹의 태평정(太平亭) 등지에 주둔하던 동학농민군은 나주성 공격을 위해 다시 함박산으로 진출하여 주둔했다.

(6) 나주 [호남]초토영터 농민군 처형지

전봉준·손화중을 비롯한 동학농민군이 수감되거나 처형된 호남초토영이 있던 곳이다.¹² 1894년 음력 10월 28일 호남초토사(湖南招討使)에 임명된 민종렬은 나주에 호남초토영(招討營)을 설치하고 민보군(民保軍)을 모집했다. 이 호남초토영은 호남의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본부 역할을 했으며, 음력 12월 이후 전라도 각지에서 체포된 수많은 농민군들이 이곳에 수감·처형당하여 순국하였다. 전봉준·손화중·최경선 등도 수감되었다가 서울로 압송당하였다. 화순집주 한달문(韓達文)이 옥중에서 고향의 어머니에게 구명을 요청하며 쓴 편지가 남아 있다.

10 금안면은 1914년 이로면(伊老面), 복암면(伏岩面)과 합해져 노안면이 된다. 윤여정, 『대한민국 행정지명』 1-전남·광주, 향지사, 2009 참조.

11 지금의 나주시 노안면 용산리 남산마을이다.

12 梧下記聞』《叢書》1, 309쪽; 『錦城正義錄』《叢書》7, 24쪽; 『金洛詰歷史』《叢書》7, 241~242쪽; 『전남동학농민혁명사』, 249·292·296·569쪽.

(7) 금성토평비

나주 수성군이 동학농민군을 물리치고 나주성을 지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 1895년 세운 비이다.¹³ 금성토평비(錦城討平碑)는 거북을 새긴 받침돌 위에 빗몸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돌을 올린 모습이다. 받침돌은 땅 속에 파묻혀 그 윗부분만 보이고 있다. 비문의 내용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 동학농민군이 나주에까지 들어오는 과정, 나주목사 민종렬이 여러 장수들과 방어 계획을 세우는 과정, 수성군과 농민군이 나주목에서 전투를 벌이는 과정 등 3부분으로 구분된다. 동학농민혁명이 끝나자 나주의 유림들이 뜻을 모아 세운 것으로 짐작되며, 기우만(奇宇萬)이 글을 짓고 송재회(宋在會)가 글씨를 써서 1895년에 세웠다.¹⁴ 이 비는 나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 동학농민혁명사 연구에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이 비는 원래 정수루(正綏樓) 앞에 세웠다가 금성관(錦城館) 앞으로 옮긴 것을 1976년 금성관 내로 옮겼다. 1990년 2월 24일자로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175호로 지정되었다. 2011년 조사 때는 동쪽에 있었으나 금성관 일대를 발굴 조사하고 정비하면서 서쪽으로 옮겼다.

(8) 나동환 의적비·진주정씨 행적비

나주 동학농민군 접주 나동환과 부인 정씨의 의열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¹⁵ 나주의 접주 나동환(羅東煥, 1849~1937)은 1894년 500명의 농

13 蘭坡遺稿』《叢書》8, 122·57쪽; 『錦城正義錄』《叢書》7, 45~51쪽; 『전남동학농민혁명사』, 297쪽.

14 정윤국, 「금성토평비」, 『나주목지』, 1989, 418~420쪽;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 『금성정의록』, 1991, 370~376쪽; 이상식·박맹수·홍영기 편, 『전남지방 동학농민혁명 자료집』, 전라남도, 1996, 359~365쪽.

민군을 이끌고 나주성을 공격했으나 실패했고, 전봉준이 체포되자 함평군 월야면 연암리의 처가로 은신했다. 부인 진주정씨(晉州鄭氏)는 남편과 아들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고, 자신은 관군들에게 잡혀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을 기리기 위해 의열각(義烈閣) 안에 <나주나공 동환의적비(羅州羅公東煥義蹟碑)>와 <효열부진주정씨행적비(孝烈婦晉州鄭氏行蹟碑)>가 세워졌다. 정수루 옆에 있었으나 금성관 일대를 정비하면서 옮겼다.

2) 유물

유물은 기록문헌과 문서 등을 들 수 있다. 나주 동학농민혁명 자료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바 있다. 『金洛喆 歷史(羅州關聯部分)』, 『履歷(羅州關聯部分)』, 『甲午 七月 東學道人 名錄』 『甲午 九月 東學道人 名錄』, 『錦域正義錄』, 『蘭坡遺稿』, <劉光華書翰> 등이다.

(1) 일기류 1 -금성정의록

『금성정의록(錦城正義錄)』은 나주의 유림 겸산 이병수(兼山 李炳壽, 1855~1941)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관군 편에서 적은 기록과 1895년 을미년의 의병 등에 관한 기록을 필사한 것으로 나주 지역 동학과 의병운동을 이해하는 사료적 가치가 크다. 2006년 12월 27일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86호로 지정되었다.

15 전남동학농민혁명사』, 290~291쪽; 김은정·문경민·김원용, 『동학농민혁명100년』, 나남출판, 1995, 291쪽.

(2) 일기류 2-종군일지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로 최근 확인된 『明治二十七年 日清交戦 従軍日誌』이 주목된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 학살 전담부대인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 楠 美代吉(쿠스노끼 비요키치) 상등병의 일기이다. 직접 참전하고 학살을 자행했던 일본군의 개인 일기라는 점에서 나주만이 아니라 동학농민군의 학살 기록으로 중요하다. 1895년 2월 5일 기록을 보면, 남문결의 작은 산에 사람의 시체가 쌓여서 산을 이루고 있었고, 일본군에 포획되어 책문(責問)을 한 다음에 중죄인(重罪人)을 죽인 것이 매일 12명 이상으로 103명을 넘었고, 시체를 버린 것이 680명에 달하여 그 근방에는 악취가 진동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¹⁶

(3) 문집류 -난파유고, 겸산유고

문집류 기록도 들 수 있다. 『난파유고(蘭坡遺稿)』나 『겸산유고(謙山遺稿)』가 대표적이다. 『난파유고』는 나주의 호장(戶長)으로 동학농민혁명 때 나주를 수성(守城)한 데 공을 세워 1896년 초 해남군수에 임명된 정석진(鄭錫珍, 1851~1896)의 유고집이다. 호남초토사가 군무의 공적을 보고한 별지[招討使報軍功別紙單], 1894년(甲午) 토평일기(討平日記)가 부록을 실려 있다.¹⁷ 『겸산유고』는 앞에서 살핀 『금성정의록』의 저자 겸산

16 박맹수,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기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3, 2018, 203~228쪽; 강효숙, 「제2차 동학농민전쟁과 일본군」, 일본군의 생포 농민군 처리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제30호, 2007, 63~100쪽에서도 나주 임시재판소의 생포농민군 처리(제19대대)에 대해서 다룬 바 있다.

17 김옥경, 「역주 《난파유고(蘭坡遺稿)》」, 전남대학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석사논문, 2015.

이병수의 유고집이다. 1894년 때에 동학군이 나주읍성을 침공해 오자 민중열 나주목사는 이병수를 측근에 두고 주로 문장(文章)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고 한다.¹⁸

(4) 관문서류-첩정 등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고문서도 중요하다. 문서1[첩정(牒呈)]은 호남초토사(湖南招討使) 민종렬(閔種烈)이 의정부에 올린 보고서이다. 1894년 4월 6일에 시작되어 전개된 동학농민군 토벌과 관련한 구체적인 경과를 보고하고, 동학농민혁명군 소탕을 위해 정예병력의 파견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동학의 거두였던 이여춘(李汝春)의 목을 베어 높이 매단 것을 비롯하여 동학군 토벌의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적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군의 동향과 정부의 대응책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¹⁹

문서2[성책]는 동학농민혁명군 토벌 과정에서 희생당한 동학농민군의 숫자와 노획물의 현황, 전투에 참여한 수성 정졸의 명단 등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²⁰

호남초토사서목(湖南招討使書目) 1은 1894년 11월 29일 호남초토사 민종렬이 양호도순무사에게 올린 서목 문서이다. 호남 열읍(列邑)에서

18 나천수, 『역주 《겸산유고(謙山遺稿)》』 『詩·書·日記類』, 전남대학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박사논문, 2017.

19 국립중앙박물관, 「호남초토사 민종렬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해 의정부에 올린 보고서」(구(購)629)

20 국립중앙박물관, 「호남초토사 민종렬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해 의정부에 올린 보고서」(구(購)630)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으로 분석한 바 있다. 김희태, 「동학농민혁명군의 나주로의 압송과 처형」, 나주시,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 나주학 총서 2집, 2022, 127~160쪽.

동학농민혁명군을 진압한 장졸의 이름, 희생당한 동학농민군의 숫자, 노획한 물건 등 전과에 대한 보고는 이미 성책(成冊)을 갖추어 전달하였으며, 정에 병정 수천 명을 본진(本陣)에 배치해 완전 소탕하여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양호도순무사가 “임금에게 글로 아뢰겠으며, 포상에 관한 문제는 정부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글이 12월 15일자로 적혀 있다.²¹

호남초토사서목 2는 1895년 1월 24일 호남초토사 민종렬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 군무대신에게 올린 보고서[牒呈]의 서목(書目) 문서이다. 내용은 민종렬이 동학농민혁명군을 토벌하기 위해 호남의 4읍(邑)을 1통(統)으로 편성하여 체제를 갖춘 사실, 무기가 불리한 나주 수성군(守城軍)에게 서양 총 수백정과 탄환을 지급해 달라고 군무대신에게 요청하는 글이다. 이에 대한 군무대신의 처분이 2월 13일자로 초서체로 적혀 있다.²²

감결(甘結)은 호남초토사 민종렬이 각 읍에 내린 문서이다. 매 4읍마다 한 통(統)으로 편성하여 동학도 소탕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작통성책(作統成冊)을 즉시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이다.²³

(5) 사문서류-서간문 등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문서 가운데 유생들이 서명하여 민종렬에게 올린 단자(單子) 문서가 있다. 1894년 12월 25일에 전라도 나주, 광주,

21 국립중앙박물관, 「호남초토사 민종렬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해 의정부에 올린 보고서」(구(購)630).

22 국립중앙박물관, 「호남초토사 민종렬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해 군무대신에 올린 보고서」(구(購)654).

23 국립중앙박물관, 「호남초토사 민종렬이 각 읍에 내린 문서」(구(購)650).

창평, 함평, 담양 등지에서 수십 명의 유생들이 서명하여 호남초토사 민중렬에게 올린 단자이다. 나주목사로 있다가 동학농민군 토벌을 위해 호남초토사에 임명된 민중렬에게 성금과 포(布)를 모아 바치고 충정을 표시하는 내용이다. 초토사의 수결과 함께 이에 대한 글[제음]이 적혀 있다.²⁴

나주 옥중에서 화순의 어머니에게 썼다는 <한달문 서한(韓達文書翰)>, 그리고 나주의 <유광화 서한(劉光華書翰)> 등 개인의 서한도 중요한 기록유물이다.²⁵

이밖에도 정의림(鄭義林)의 「일신재집(日新齋集)」 중 「상민초토사(上閔招討使(鍾烈))」, 오계수(吳繼洙) 『난와집(難窩集)』, 오준선(吳駿善)의 『후석유고(後石遺稿)』 중 「송민초토사서(送閔招討使序)」, 기우만(奇宇萬)의 『송사집(松抄集)』 중 「답민초토사(答閔招討使)(鍾烈)」, 민중렬 서간문(7건) 등도 있다. (한국학자료센터) 그리고 1894년 정월에 복접 법헌의 나동환 교장(敎長) 위촉장 등도 새로 발굴되었다.²⁶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 활용 사례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 활용 사례는 유적지 현장 정비를 중심으로 살펴해보겠다. 비교적 최근에 성역화 사업을 실시한 장흥 사례, 주요 전적지

24 국립중앙박물관, 「전라도에서 유생들이 서명을 하여 민중렬에게 올린 문서」(구(購)647).

25 『전남 동학농민혁명사자료집』, 앞 책, 464·665쪽.

26 나천수, 「다시 쓰는 나주 동학 농민군 이야기-나주 동학 집주 나동환을 중심으로」,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94, 2022.

인 장성, 정읍, 공주 사례, 그리고 고창 사례이다.²⁷ 이에 더하여 최근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무안 사례를 살펴보겠다.²⁸

1) 정읍

정읍은 사발통문 봉기 계획이 수립된 곳이며, 1894년 1월 10일 고부 농민들이 말목장터에서 봉기하여 고부관아를 점령함으로써 봉기가 시작된 곳이다. 그리고 백산에서 호남 농민군이 봉기하여 전국적인 농민 혁명 단계로 발전하였다.

1963년 10월 3일 우리나라 최초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조형물인 갑오 동학혁명기념탑을 황토현 전적지에 건립하였다. 이어 1974년 5월 11일 만석보 유지비 건립,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건립, 동학농민군 영술장 최경선 장군 묘역 정비, 고부봉기 역사맞이곳, 정읍동학 유적지 안내 책자 발간, 동학농민혁명군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과 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안내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1969년부터 동학농민군 최초의 전투일이자 전승일인 5월 11일에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하고 있다. 2007년 황토현동학축제, 2012년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로 명칭을 바꾸었다. 2004년 8월 동학농민혁명 캐릭터 ‘갑오동이’를 개발하였다.

황토현 전적지(정읍시 덕천면, 335,826㎡)는 1981년 12월 10일 국가

27 장흥동학농민혁명역사공원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집한 전라남도, 장흥군 자료와 해당 기관의 누리집 등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무안동학혁명 역사성 고증 및 기념사업 기본계획수립 결과보고서』의 사례 부분도 참고하였다.

28 1996년 4월 함평동학농민혁명 장경삼, 장옥삼, 장공삼 공적비가 건립된 바 있다. 이상식이 글을 지어 이병현이 쓰고 나상옥이 조각하였다. 함평군 신광면 계천리 사천마을 입구 장산들에 있다.

지정문화재 사적(제295호)으로 지정되었다. 1983년부터 황토현 전적지 기념사업을 실시했다. 기념관(1983년, 137㎡), 제민당(강당, 1987년, 135㎡), 구민사(사당, 1991년, 57㎡), 전봉준 동상 1기(높이 2.7m, 좌대 3.7m), 기념탑 1기, 내삼문, 외삼문 등이다.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기념관 사업을 하였다. 전시관(지하 1층, 지상 2층, 3,817㎡), 교육관(지하 1층, 지상 2층, 1,544㎡)을 건립하였다. 총 사업비는 39,300백만 원(국비 11,800, 특별교부세 9,000, 지방비 18,500)이었다.

2) 공주

공주 우금치 전적지(공주시 금학동 산78-1 일원, 부지 564,115㎡)는 1994년 12월 10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제387호)으로 지정되었다.²⁹ 초기 사업으로 위령탑 건립, 봉화대(4기)(1973.11.11), 목비, 장승 설치(1995, 동학농민전쟁 제101주년 기념행사)를 하였다. 1996년~2003년 사이 토지 매입(51,896㎡)을 하고 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사업비는 1,128백만 원(국비 650, 지방비 478)이다. 5년이 지난 2008~2012년 사이 토지 매입(33,000㎡)을 하고 건물 10동을 매입·철거하였다. 사업비는 12,000백만 원(국비 8,400, 지방비 3,600)이다. 1996~2002년 사이 총 사업비 13,128백만 원(국비 9,050, 지방비 4,078)이다.

3) 고창

고창은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했던 전봉준 장군의 태생지이며 동학의

29 처음(1994.12.10.) 지정 구역은 51,896㎡, 추가(1997.02.07.) 지정 구역은 512,219㎡이다.

대접주 손화중의 활동무대였다. 그리고 구수마을은 1894년 3월 20일 동학농민혁명 포고문을 선포하면서 전국적인 봉기로 출발한 무장기포의 역사적 현장이다. 1994년 1월 4일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발족하였고 2007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다.³⁰ 매년 무장 포고문을 선포한 날 [음력 3월 20일, 양력 4월 25일]에 위령제를 지내다가 1997년부터 ‘무장 기포기념제’로 진행하고 있다.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무장 기포지 성역화 사업과 전봉준 장군 출생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무장 기포지(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8,605㎡) 성역화사업은 무장포고기념비, 훈련장, 화장실, 주차장 등이다. 1991년부터 2002년 사이에 사업비는 500백만 원(도비 250, 군비 250)이었다. 전봉준 장군 출생지(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당촌 63, 3,778㎡) 환경개선사업은 생가(초가) 복원, 비석 1기, 안내판, 주차장 등이다. 1998년부터 2000년 사이 사업비는 300백만 원(도비 150, 군비 150)이었다. 문화재로는 지정되지 않은 곳이다. 전봉준 선생 고택지는 사적 제293호(1981.9.27 지정,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458-1 일원)이다. 2011년 7월 28일 정읍 전봉준 유적으로 문화재 명칭이 변경되었다.

4) 장흥

장흥 지역은 동학농민혁명 최후 최대 전적지인 석대들 전적지가 있다.

30 학술대회를 실시하고 『전라도 고창 지역의 동학농민혁명』(1996), 『동학농민혁명과 고창』(2008) 등을 발간하고 녹두대상(동학농민혁명대상) 시상식(2008)을 하고 있다. 녹두교실 홈페이지 운영(2008),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역사 기록화 사업(2007) 등을 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전쟁의 4대 전적지(황토현, 우금치, 황룡, 석대들) 중의 하나로 동학 농민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중요한 유적이다. 2009년 5월 11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498호)로 지정되었다.³¹ 석대들 전적과 함께 장흥 관아 터 농민군 점령지, 장대 터 농민군 처형지, 동학농민군 묘역, 동학농민혁명기념탑 등 17개소 유적이 조사된 바 있다. 석대들 전적 사적 지정을 계기로 장흥 석대들 전적지 사적 지정 기념 국제학술대회(2009. 10. 23), 동학농민혁명 제115주년 전국대회(2009. 11. 05~11. 07)가 열렸고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³²

성역화 사업은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5번지 등 51필지 35,700m² 일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동학농민혁명의 최대 최후 격전지를 이념과 전개 과정을 간직할 수 있는 산 역사의 교육 현장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자긍심을 제고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동학농민혁명사에 대미를 장식한 곳으로서의 역사성을 내세운 것이다. 내용은 전시기념관(홍보영상관), 상징조형물, 조경, 주차장 건립 등이다.

전시실에는 동학 관련 각종 책자와 고문서와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이

31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 『장흥동학농민혁명사』, 1992; 위익환 역저, 『장흥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1·2-동학농민혁명 최후 격전지사, 천도교장흥교구·장흥군, 2009; 전라남도·장흥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라도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 사료집』, 2010; 김희태·김상찬, 「장흥 동학농민혁명 전투와 석대들 전적지」, 『장흥 공설공원묘지 정비(무연묘) 관련 장흥 동학농민군 학술조사 보고서』, 장흥군·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8.

32 장흥군에서는 명칭 공모 설문(2019. 10. 28~11. 30)을 하여 “장흥 동학농민혁명역사공원”으로 하였다. 네 개 안이 제시되었다. 최후 격전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장흥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 장흥 석대들 동학평화시민공원, 장흥 석대들 전적지 역사공원.

사용했던 무기류도 있다. ‘세계 속의 동학농민혁명’, ‘최후의 항쟁, 석대들 전투’ 등에서는 영상물을 통해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활약했던 장태장군 이방언, 이인환, 이사경, 구교철, 문남택 대접주를 비롯하여 소년 뱃사공 윤성도, 여장군 이소사, 열세 살 소년 장수 최동린 등 동학 역사 인물도 전시하였다. 2008~2012년 계획으로 추진하여 2015년 4월 26일 개관하였다.

〈표 2〉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백만)	사업 내용
계		11,840	
토지 매입	2008~2009	1,590	토지 매입(27필지)
부지 조성 사업	2009~2009	550	기존 주택 철거, 기반시설, 공원 조성
조형물 조성	2010~2010	1,914	동학농민혁명 상징 조형물 설치
홍보영상관 건립	2010~2010	4,486	홍보 영상관+기념관 건립
산책로 조성, 주변 정비	2011~2011	3,300	산책로 조성, 화장실, 주차장 건립 등

장흥에서는 2004년 2월 27일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설립한 이후 매년 기념식과 사료집 편찬³³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2011년 11월 18일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 2012년 12월 4일 창립총회를 거쳐 2013년 4월 11일 전라남도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장흥동학농민 대동한마당(2014.04.26./제120주년 기념식, 동학농민대동제, 연합사물놀이(12읍면 농악대), 사발통문 작성, 동학 체험 행사

33 위익환 저, 『장흥동학농민혁명과 그 지도자들』-장흥동학농민혁명과 이방언장군,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외, 2013.

와 전시회, 강강술래, 음악회), 장흥동학농민혁명 창작극 기념공연(2014. 04. 25.), 장흥 동학농민혁명 전국대학생 논문대회, 『이야기 장흥동학농민혁명』발간 등을 계획하거나 실행하였다. 최근에는 장흥문화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웹툰을 제작하여 보급한 바도 있다.³⁴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³⁵

5) 장성

장성 황룡 전적지는(장성군 황룡면, 20,388㎡)는 1998년 4월 10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06호로 지정되었다. 동학군이 전주성을 점령하는 계기가 된 황룡전투의 전적지이다. 1994~1997년 사이 동학농민혁명기념탑을 설치하고 동학농민혁명승전기념공원을 조성하였다. 광주·전남 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전라남도과 장성군의 지원이 따랐다. 사업비는 250백만 원이었다.

6) 무안

무안군에서는 학술조사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⁶

34 2017년 문화콘텐츠 상품 개발 및 보급 사업으로 <갑오-1894 동학 최후의 전투, 장흥석대들 전투> 15부작 웹을 제작하였다.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장흥군 주최, (주)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주관, 장흥문화원 기획이었다.

35 박형모, 「기억의 장소와 에코뮤지엄」, 2018. 10. 26; 박홍규, 「동학농민혁명관련 조형물과 역사전투도, 인물화의 성격과 방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장흥군민과 함께 하는 장흥동학 역사인문학 강좌』

36 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무안군, 『무안동학농민혁명 역사성 고증 및 기념사업 기본

〈표 3〉 무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안)

구분	추진 시기	주요 내용	예산안
기념공원 조성	2014~2015	무안 동학 안내문, 쉼터 등	16억 원
상징물 건립	2014~2015	무안 동학 기념탑	1억 원
기념제 개최	2014년부터	기념행사, 위령제, 축하행사	5천만 원
유적지 정비	2014년부터	무안 동학 사적지 정비 자원화	10억 원
학술대회	2014년부터	무안 동학 관련 학술대회	2천만 원
시민강좌	2014년부터	시민 대상 교양강좌	1천만 원
홈페이지 구축	2014년	무안 동학 스토리 뱅크, 기념사업 소개	5백만 원

무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내실 있게 장기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념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 내 자체 동력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의 지원,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동학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³⁷의 정례화, 전국화를 위한 대표 브랜드 및 문화상품 개발(무안 동학의 상징, 배상옥 장군 관련 상품 개발, 무안 동학 캐릭터를 활용한 인형 등 상품

계획수립』, 2013.

37 답사는 9시 집결(노인복지회관 3층)해서 18시에 무안 송달예술회관에서 해산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30분의 사전 교육 특강(무안의 동학농민혁명에 이어 해제면 임치진, 민대들, 삼의사 비, 무안을 동학골, 붉은고개, 불무제 다리, 몽탄면 차뫼 인평 마을, 일로읍 개산재, 삼향을 대양리 배상옥 장군 생가, 청계면 바우백이 청천재, 함평 고막원 전적지터 등이다.

개발, 무안 동학 만화 제작 및 보급)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무안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 정립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고유 명칭(무안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립과 공식 사용, ‘무안동학’의 범주(무안, 함평 등)에 대한 설정, 무안동학 탐방코스를 ‘무안권 역사문화’와 연계 풍부한 스토리 창출, 무안 창포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활용, ‘무안동학’과 ‘하도의 영수 배상옥’ 개념화를 통한 브랜드화 추진, 배상옥 장군의 개념화를 위한 상징물 제작(초혼묘, 흉상제작), “섬으로 간 동학”이라는 이미지 확대와 관련 연구 진행 등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그다지 실행을 담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3.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 활용 방안

1) 해석, 연망, 미래의 연계

어느 특정 시기나 사건, 장소, 인물 등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유산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때 중요한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항상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정리가 함께 따라야만 한다. 그 자료 수집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물론 관련 시기, 유형, 인물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해석해야 한다. 어느 경우이건 동학농민군 측의 직접적인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수성을 했던 관군이나 토벌이 주임무였던 정부 측, 동학에 비판적이었던 유림 측의 기록이 주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엄밀한 사료 비판과 재해석이 선행된 뒤에 활용해야 한다. 연차적으로 학술대회나 주

민토론회가 이어져야 한다. 특히 주민의 참여는 중요하다.

자료가 수집되면 세밀하게 분석하고 교차로 엮어 가면서 연표식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동학농민군이든 유림이나 수성군이든 전통시대의 제반 활동은 연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야만 집단과 지역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적 특성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주에서 동학농민군이 수성군에 밀린 것은 향리층의 동향과 무관하지 않았다. 민란을 야기한 당사자들로써 1894년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맞아서 수성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이 같은 각 집단과 세력들의 연망을 분석하여야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인식의 기반 위에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동학의 이상과 동학농민군의 처절한 투쟁, 그 역사적 동향은 그 자체로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추구했던 평등이나 상생이 생활화될 수 있어야 하고, 나주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현장 자료의 연계 홍보 활용

동학농민혁명기의 유산을 유적과 유물로 살펴보았지만 기록이 있어도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구전으로만 전하는 지역도 있다. 부족하거나 미비한 자료라도 조사된 자료는 활용을 잘해야 한다. 전남도에서 조사한 동학농민혁명기 나주 유적은 8개소임을 살폈다. 한 곳은 위치 확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 이후 홍보나 활용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두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등재된 동학 유적지 내용을 2019년 기준으로 보면, 나주가 7개소이다. 2011년 전남도 조사 8개소와 수치상으

로 비슷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서로 다르다. 등재된 목록을 보면, ① 나주 관아, ② 나주객사 금성관(전남도유형문화재[제2호]), ③ 남고문, ④ 나주 평적비, ⑤ 정수루(전남문화재자료[86호]), ⑥ 나동환비각, ⑦ 나주내아(전남문화재자료 [132호]) 따위이다.³⁸

나주내아에 대한 설명은 “이곳에서 전봉준과 나주목사 민종렬이 비밀 회담을 하였다고 전한다. 전봉준은 1894년 8월 나주목사 민종렬을 만나 호남에서 집강소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나주에도 집강소를 설치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민종렬은 이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6개소는 소재지와 지정문화재인 경우 지정 종별과 번호만 표기되어 있었다.

각종 기록에 나오고 이미 조사된 전투지나 주둔지 일부는 들어 있지 않았다. 대부분 관아 건물이 올라 있는데 설명 없이 사진만 있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 제정되고 법규에 따라 들어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자료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³⁹ 나주로만 보자면, 어쩌면 수성군과 호남초토영군 중심의 시각에 머무른 듯싶었다.

다행히 동학농민혁명재단의 웹사이트 개편을 통하여 자료가 보완되었다. 나주 금성산 동학농민군 주둔지(나주시 경현동), 나주 남외동 동학농민군 처형지(나주시 남외1길), 나주 동학농민군 금성토평비(지방문화재)

3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http://www.1894.or.kr>)

39 이 같은 사례는 장흥의 경우도 2019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자료에는 4개소만 올라 있었다. 2009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조사,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조사, 2011년도 전남도 조사(17개소) 자료 등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뒤로 개편을 통하여 11개소가 올라 있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http://www.1894.or.kr>))

(나주시 금성관길), 나주 동학 접주 나동환 기념비 (나주시 과원동), 나주 함박산 동학농민군 전투지 (나주시 대호동), 나주성 전봉준-민중렬 회담 지 (지방문화재, 나주시 금성관길), 나주읍성 서성문 전투지(지방문화재) (나주시 교동) 등이다.⁴⁰

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등록과 연계 분석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다. 처음에는 공공기록물 등재 인물을 대상으로 직권 등록이 함께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당사자의 신청은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연계 자료가 조금이라도 찾아진다면 신청을 거쳐 보는 게 좋을 것이다. 행정기관이나 문화 역사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당사자들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누리집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는 2023년 10월 기준 3,766명이었다. 이 가운데 지역을 '나주'로 하여 검색하니 233명이었다. 초기 기포지나 주요 전적지를 검색해 보니 장흥 380명, 고창 43명, 정읍 48명, 공주 111명, 장성 80명, 광주 59명, 함평 92명, 강진 71명, 무안 67명 등이었다. 나주 인근의 광주 60명, 함평 97명, 강진 82명, 무안 74명 등이다. 이 수치는 해당 시군만의 단일 지역 참여자로 보기는 어렵다. 복수의 참여 지역명이 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⁴¹

40 최근 간행된 『천년의 역사문화도시 나주의 재발견』(나주시, 2018)에서도 “나주 동학” 관련 내용이 들어갔으면 더 좋을 것이다.

41 2023년 10월 기준으로 참여자 등록은 3,766명, 나주 233명, 장흥 380명, 고창 43명, 정읍 48명, 공주 111명, 장성 80명, 광주 59명, 함평 92명, 강진 71명, 무안 67명이다. (동

그렇더라도 나주가 이처럼 많은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수성군과의 접전지이고 전라도 지역 동학농민혁명군의 처형지 호남초토영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광주, 무안, 함평, 우금치, 무장, 금구, 백산, 정읍 등 참여 지역이 복수로 나온 경우가 많아서이다. 나주 지역만 단독으로 참여 지역이 표기된 경우는 97명에 이른다. 분명 97명도 다른 지역의 사례와 비겨 보면 적은 수는 아니다.

이같이 참여 지역이 복수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해석과 연망의 분석이 좀 더 치밀해져야 하겠다.

4) 장기, 지속의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체계 정비

유적의 정비나 유물의 보존 활용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예산 반영과 법제화 등도 검토한다. 그런데 염두에 둘 것은 “장기 지속”이다. 뜻이 모아지고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여도 “장기 지속”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일회성”에 머물고 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학농민혁명 유산의 활용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것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랐던 데서도 기인한다. 연구가 축적되고 사회 인식이 변하면서 기념사업이 추진되었다. 공주 우금치 전적지나 정읍 황토현 전적지 기념사업은 국가의 관심이 뒤따랐지만, 당대의 사회 사정으로 보면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다. 여하튼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 제정되었고 기념사업이 궤도에 올랐다고 볼

학농민혁명기념재단(<http://www.1894.or.kr>))

수 있다.

장기 지속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이 같은 법제화이다. 법령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4년 9월 6일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 시행되었다.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①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②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③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④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여자 등록이나 기념사업이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으로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2개소, 기초자치단체 14개소⁴²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2023년 10월 기준으로 광역은 5개소, 기초 25개소가 제정하였다.

<표 4> 동학농민혁명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지자체	기념사업	기념관	기념일	유족수당	계
광역	경남, 광주, 전남, 충남	전북			5
기초	광주 광산 전북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완주, 전주, 정읍 충남 공주, 논산, 당진, 아산, 예산, 천안	충남(공주), 태안 전남 장흥	전북 정읍	전북 정읍	25

42 광역지자체는 전남과 충남, 기초지자체는 전남 장성군, 장흥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전주시, 정읍시, 충남 공주시, 당진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충북 옥천군, 경북 산청군이었다.

	충북 옥천 경남 남해, 산청 전남 무안, 장흥, 장성				
계	24	4	1	1	3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네 가지 성격으로 나누어진다. 기념사업, 기념관, 기념일, 유족수당 관련이다. 기념사업 조례는 24개 지자체, 기념관 설치 조례를 보면 광역은 전라북도, 기초는 전남 장흥군, 충남 공주시와 태안군이 제정하였다. 전남 장흥과 충남 공주는 기념사업 지원 조례와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가 함께 있다. 전북 정읍시는 기념사업, 기념일, 유족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참여자로 등록된 유족에게는 매월 유족수당을 개인별로 지원하고 있다. 충남 공주의 경우는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라 법령제명을 부여하여 제정하였다.⁴³

그런데 조례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의 조항에 따른 위임조례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관련 조례 30건 가운데,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을 명시하고 있는 조례는 광역 2건, 기초 8건이다. 태안 기념관의 경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명시하고 있다. 모법인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서 조항으로 명시하여 위임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가·기념재단·지자체’의 법령 체계가

43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확립될 것이다. 현행과 같은 국가-기념재단의 이원적 법령 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조례 형식의 법령 체계로서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명시한 동학농민혁명의 계승발전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디게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인문학 자원의 종합화 검토

지금까지 나주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동 시기 전후하여 시대 사정을 볼 때 “동학농민혁명군”, “수성군”, “관군”, “의병”, “향리”, “관리”, “수령”, “사족” 등이 함께 연결되고 있다. “동학”을 논의하는 자리라 당연히 “동학”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시대성이나 지역성을 논하려면 광범위하게 함께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인문학 자원의 종합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초조사와 해석, 연망의 분석 등이 이어져 “나주”라는 큰 틀에서 조망하고 투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나주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⁴⁴ 그러한 자료들이 합해져 상생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나주 동학농민혁명, 한에서 흥으로 승화하다”라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나주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의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리

44 김희태, 「나주학이 왜 필요한가?」, 『나주문화원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나주학 3』, 나주문화원 다목적홀, 2019.08.20.

하면서 나주의 동학유산, 다른 지역 동학유산의 활용 사례, 나주 지역 동학유산의 활용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나주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은 유적이 8개소가 조사된 바 있다. 유물은 일기류, 문집류, 관문서류, 사문서류가 확인된다. 기존에 확인된 관찬류 자료도 많다. 활용 사례는 비교적 최근에 진전을 더해 가고 있는 장흥과 동학농민혁명 주요 전적지인 공주 우금치, 정읍 황토현, 장성 황룡촌, 그리고 초기 기포지인 고창 등의 사례를 살폈다.

활용 방안으로는 크게 다섯 항목을 제안하였다. ① 해석, 연망, 미래의 연계 ② 현장 자료의 연계 홍보 활용 ③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연계 분석 ④ 장기, 지속의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체계 정비 ⑤ 인문학 자원의 종합화 등이다.

기초조사를 충실하게 하고 재해석을 해야 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말이다. 서로 연망을 잘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조사되었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는 연계해서 활용해야 한다. 관심을 넘어 의무감으로 연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경우도 '나주'로 검색하니 233명에 달한다. 보통 나주는 동학농민혁명군보다는 수성군이나 호남초토영군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인식하곤 했다. 그런데 주요 전적지라는 정읍, 공주, 장성보다도 2~3배의 참여자 통계는 분명 나주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관점을 바꾸어 다시 들여다보아야 할 때이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 수립과 법제적인 뒷받침도 분명 필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30개 지자체가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기념사업, 기념관, 기념일, 유족수당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조례 가운데 모범인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을 조항에

명시하고 있는 조례는 10건이다. 일종의 위임조례의 형식이지만, 모법에 위임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 즉, 모법인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서 조항으로 명시하여 위임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가-기념재단-지자체’의 법령 체계가 확립될 것이다. 현행과 같은 국가-기념재단의 이원적 법령 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조례 형식의 법령 체계로서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명시한 동학농민혁명의 계승발전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디게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의 조사와 연계 분석, 계획의 수립 등이 이어져 “나주”, “나주학”이라는 큰 틀에서 조망하고 투시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러면 “나주 동학농민혁명, 한에서 흥으로 승화하다”라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 2023.10.16.	심사일 : 2023.11.14.	게재확정일 : 2023.11.16.
-------------------	-------------------	---------------------

참고문헌

- 김은정·문경민·김원용, 『동학농민혁명100년』, 나남출판, 1995.
- 나선하, 『조선 후기 나주 향리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논문, 2006.
- 나주시, 『천년의 역사문화도시 나주의 재발견』, 2018.
- 나주시,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 나주학 총서 2집-, 2022.
- 나천수, 『역주《겸산유고(謙山遺稿)》』 詩·書·日記類, 전남대학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박사논문, 2017.
-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 『금성정의록』, 1991.
-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장흥문화원, 『갑오-1894 동학 최후의 전투, 장흥석대들 전투』 (15부작), 2017.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무안군, 『무안동학농민혁명 역사성 고증 및 기념사업 기본계획수립』, 2013.
- 위의환 역저, 『장흥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1·2-동학농민혁명 최후 격전지사-, 천도교 장흥교구·장흥군, 2009.
- 위의환 저, 『장흥동학농민혁명과 그 지도자들』 장흥동학농민혁명과 이방언장군-,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외, 2013
- 윤여정, 『대한민국 행정지명』1-전남·광주-, 향지사, 2009.
- 이상식·박맹수·홍영기 편, 『전남지방 동학농민혁명 자료집』, 전라남도, 1996.
-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 『장흥동학농민혁명사』, 1992.
- 전라남도·무등역사연구회, 『전남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전남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실태조사』, 2011.
- 전라남도·장흥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라도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 사료집』, 2010.
- 홍영기,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사회운동사-동학농민혁명과 의병항쟁』, 광주광역시·전라남도, 2016
- 강효숙, 「제2차 동학농민전쟁과 일본군-일본군의 생포 농민군 처리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제30호, 2007.
- 김옥경, 「역주 『난파유고(蘭坡遺稿)』」, 전남대학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석사논문, 2015.
- 김희태,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 활용 방안」, 『나주 동학농민혁명 국제학술회-나주 동학농민혁명, 한에서 흥으로 승화하다』, 나주시·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소, 2019.10.30.
- 김희태, 「동학농민혁명군의 나주로의 압송과 처형」,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 (나주학 총서 2집), 나주시, 2022.
- 나천수, 「다시 쓰는 나주 동학 농민군 이야기-나주 동학 접주 나동환을 중심으로」,

-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94, 2022.
- 박맹수,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기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3, 2018, 203~228쪽.
 - 배항섭, 「나주 지역 동학농민전쟁과 향리층의 동향」, 『동학연구』 19, 2005.
 - 이상암, 「나주지방의 동학농민전쟁과 관군의 대응」,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 논문, 2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http://www.1894.or.kr>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 활용 방안

김희태(前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나주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의 현황, 다른 지역의 활용 사례, 나주 동학의 활용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나주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은 유적이 8개소가 조사된 바 있다. 유물은 일기류, 문집류, 관문서류, 사문서류가 확인된다. 기존에 확인된 관찬류 자료도 많다. 활용 사례는 비교적 최근에 진전을 더해 가고 있는 장흥과 동학농민혁명 주요 전적지인 공주 우금치, 정읍 황토현, 장성 황룡촌, 그리고 초기 기포지인 고창 등의 사례를 살폈다.

활용 방안으로는 크게 다섯 항목을 제안하였다. ① 해석, 연망, 미래의 연계, ② 현장 자료의 연계 홍보 활용, ③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연계 분석, ④장기, 지속의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체계 정비, ⑤ 인문학 자원의 종합화 등이다.

기초조사를 충실하게 하고 재해석을 해야 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말이다. 서로 연망을 잘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조사되었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는 연계해서 활용해야 한다. 관심을 넘어 의무감으로 연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동학 농민 참여자의 경우도 '나주'로 검색하니 233명에 달한다. 보통 나주는 동학농민혁명군보다는 수성군이나 호남초토영군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인식하곤 했다. 그런데 주요 전적지라는 정읍, 공주, 장성보다도 2~3배 많은 참여자 통계는 분명 나주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리고 장기 지속적인 계획의 수립과 법제적인 뒷받침도 분명 필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30개 지자체가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기념

사업, 기념관, 기념일, 유족수당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조례 가운데 모법인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을 조항에 명시하고 있는 조례는 10건이다. 일종의 위임조례의 형식이지만, 모법에 위임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법인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서 조항으로 명시하여 위임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가-기념재단-지자체’의 법령 체계가 확립될 것이다. 현행과 같은 국가-기념재단의 이원적 법령 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조례 형식의 법령 체계로서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명시한 동학농민혁명의 계승발전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디게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제어 : 나주, 나주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 유산, 활용 사례, 활용 방안

Abstract

Measures to utilize cultural heritage related to Naju Donghak Peasant Revolution

Kim, Hee-Tae(Former Cultural Heritage Senior Researcher,
Jeollanam-do Provincial Government)

We proposed the current status of Naju Donghak Peasant Revolution-related heritage, examples of use in other regions, and ways to utilize Naju Donghak.

Eight heritage sites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e Naju region have been investigated. Artifacts include diaries, collections of literary works, official documents, and private documents. There is also a lot of previously confirmed government-related data. Case studies looked at Jangheung, which has been making progress relatively recently, Ugeumchi in Gongju, a major battle sit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Hwangtohyeon in Jeongeup, Hwangryongchon in Jangseong, and Gochang, an early stage.

Five major items were proposed for utilization. ① Interpretation, network, future connection, ② Linked public relations use of field data, ③ Link analysis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participants, ④ Establishment of long-term, continuous basic plan and maintenance of legal system, ⑤ Comprehensive humanities resources, etc.

It is a textbook saying that basic research must be faithfully conducted and reinterpreted. It is also necessary to analyze each other's networks

well. And if there is already research or data available, it should be used in conjunction. We will have to find a way to connect with a sense of duty beyond interest.

In the case of Donghak farmer participants, when searching for 'Naju', the number reaches 233. Naju usually perceived that Suseong-gun or Honam Chotoyeong-gun had an advantage ove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ary Army. However, the statistics on participants being 2 to 3 times higher than those of Jeongeup, Gongju, and Jangseong, which are major battlefields, clearly require us to look again a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Naju.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long-term sustainable plans and legal support are clearly necessary. So far, local government ordinances have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by 30 local governments, and can be divided into commemorative projects, memorial halls, anniversaries, and bereaved family allowance support. However, among these ordinances, there are 10 ordinances that specify the <Donghak Farmers' Honor Restoration Act> as a model law. It is a form of a kind of delegation ordinance, but the delegation provisions must be included in the parent law. Juk, the parent corporation <Donghak Farmers' Honor Restoration Act> must specify and delegate it as an article, and local governments must enact and implement it as a delegation ordinance. Only then will the legal system of 'national-memorial foundation-local government' be established. In the current dual legal system of the National Memorial Foundation and the legal system in the form of ex officio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the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honor of the participant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ir bereaved families as specified in the Donghak Peasant Honor Restoration Act. Recovery will inevitably proceed slowly.

key word : Naju, Naju Donghak Peasant Revolution, Donghak Peasant Revolution Heritage, Use Cases, Utilization Plan